

부활절봉기와 아일랜드성: 아이리스 머독의 『적과 녹』을 중심으로

전 은 경

I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의 『적과 녹』(*The Red and the Green*)은 영국의 앵글로 색슨문화와 구분되는 아일랜드의 켈트문화에 대한 탐구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철학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머독은 더블린에서 출생하였고 한 살 때 부모의 이주로 영국으로 건너와 이후 영국에서 살았으나 자신이 영국계 아일랜드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1983년의 한 인터뷰에서 머독은 “나의 아일랜드성(Irishness)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국계 아일랜드성(Anglo-Irishness)이다. 이것은 특별한 방식의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한다. . . . 나는 뿌리깊이 아일랜드인이며 이 사실을 평생 의식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영국내 최고의 지적 세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일종의 망명인”(a kind of exile, a displaced person)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서 정체성의 모호성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재인용 Spear 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적과 녹』의 작중 인물들을 모두 영국계 아일랜드인들로 설정한 점은 작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작품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서 작가 자신의 아일랜드성은 켈트문화적 정서보다는 영국적 정서에 친숙하고 『적과 녹』의 등장인물들 또한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므로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점이 많이 나와 있으나 이들의 관점은 토착적 아일랜드인의 정서와 대비되는 배경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며 『적과 녹』에서 작가가 구현해 보고자 하는 아일랜드성은 토착 아일랜드인들의 켈트적 정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착적 아일랜드인의 정서를 천착하고자 하며 논문 제목에서의 “아일랜드”성도 바로 이 정서임을 밝힌다.

『적과 녹』은 머독의 25편의 장편소설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문학적 특징이 그대로 견지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머독은 시간, 장소, 스토리를 단순하고 집약적으로 구성하였고 인물도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한 가족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작품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리는 아일랜드 식민지역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1916년 더블린에서 일어난 독립투쟁인 <부활절봉기>(Easter Rising)가 발발하기 전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소설의 종결부인 에필로그(Epilogue)를 제외하고는 종려주일(“Palm Sunday”: 부활절 직전 일요일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기념일)부터 봉기가 일어난 월요일(Easter Monday)까지가 시간적 배경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더블린 한 장소로 국한되어 있다. 머독은 “그 특별한 주간에 일어난 일, 어떤 연유로 봉기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영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사람들은 그 주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려 했다”(재인용 Spear 51)라고 작품에 대한 의증을 밝혔듯이 이 봉기 관련 신문기사까지 인용해가며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했다. 작품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에서는 <부활절봉기>의 발발 이후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 사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가늠하고 있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했던 독립투쟁인 <부활절봉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큰 희생을 감수하고도 별 소득도 없이 끝나버린 부활절 봉기는 과연 필요했는지, 그 희생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되새겨 보고 있다.

『적과 녹』이라는 제목에서 ‘적’색은 영국 군인이 착용하는 “붉은색 군복”(redcoat) 차림의 영국군대를 떠올리게 하고, ‘녹’색은 아일랜드의 상징적 색깔로 이 두 나라를 연상시킨다. 작중인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아일랜드에 거주해온

영국계 아일랜드인들로 모두가 혈연과 결혼으로 서로 얽혀서 한 가계라는 소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부활절봉기> 사건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나 판단에서 아일랜드의 가톨릭종교와 켈트문화, 역사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독자는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에게 아일랜드인들의 켈트적 성향은 어떻게 생각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기질과 성향은 영국인 기질과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볼 수 있다. 『적과 녹』의 작중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크게 두 유형에 대한 알레고리로 제시되는데 하나는 영국문화를 수호하며 영국인의 우월감을 견지하는 인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에 우호적이며 켈트적 문화와 기질에 동화된 인물이다. 켈트적 성향을 지닌 인물은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예민하지만 대외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실수도 범하는 반면 앵글로 색슨적 성향의 인물은 신중하여 이성적 분별력을 중시하여 절제력이 있지만 단조로운 인물로 제시된다. 켈트문화는 앵글로 색슨적 정서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비이성적이며 어둠에 싸인 듯한 신비로움으로 불가해하게 보여서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력한 매력을 느낀다. 『적과 녹』에서는 중심적 스토리는 <부활절봉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깊숙하게는 역사·정치·종교·기질적으로 앵글로 색슨 문화와 켈트 문화라는 두 이질적인 문화의 대조를 탐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과 녹』의 인물들을 통하여 아일랜드에 살았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이들이 이해하는 아일랜드성(Irishness)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부활절봉기>의 촉발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탐지해 보고자 한다.

II. 영국문화의 대변인

작품에서 소년 커셀(Cathal)은 아일랜드의 수필가이자 민속음악가인 토마스 데이비스(Thomas Davis)의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에드워드(Edward Fitzgerald)가 죽고 울프 톤의 혁명이 허사로 돌아갈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초록 위에 빨강이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
으니까요. (109)

울프 톤은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자 신교도로서 1791년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를 창설했던 아일랜드 해방을 위한 혁명가인데 작품에서 중심적 인물인 팻 듀메이 (Pat Dumay) 역시 울프 톤처럼 영국계 아일랜드인이며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봉기에 앞장 선다. 이에 비하여 영국적 정서를 지니고 영국의 우위성을 확실하게 하는 인물은 영국기병대에 소속되어있는 앤드류 체이스 화이트(Andrew Chase-White)라는 청년과 그의 어머니인 힐다(Hilda), 이 두 모자이다. 앤드류는 아일랜드에 배치되었는데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열흘간 휴가를 얻어 쉬고 있는 중이며 그가 1916년 4월의 종려주일에 약혼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집은 더블린 근교의 킬케니와 브레이로 통하는 큰 길가에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샌디코브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지아 양식의 빌라로서 사치스러움과 위엄이 느껴진다. 앤드류는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런던에서 성장했지만 스스로를 “재교의 여지가 없이 영국인”이자 동시에 “재교의 여지가 없이 아일랜드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서 정체성의 모호함을 드러낸다(8). 평소 말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그가 기병대를 지원한 이유는 순전히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촌들에 대한 그의 라이벌의식과 경외감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이들을 “교양 없고 촌스러운 집단으로 언제나 떠들썩하고 유쾌하고 자신보다 힘이 센 자”로 생각하였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은근히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영국기마병이 됨으로써 아일랜드 사촌들 앞에서 뽐내고자 하는 욕망이 내심 작용하였던 것이다(10).

앤드류에게 아일랜드는 “어둡고 습한 섬나라”, 또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섬나라”(15)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19). 그에게 아일랜드종교는 “풀 수 없는 문제”이자 “미스테리”로서 “묘하게 마음에 들지 않은 문제”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거부감이 들었다(8). 그는 평소 영국성공회신자로 자처하였지만 실은 종교에 대하여 냉담하고 무관심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일랜드에 올 때면 묘하게 신교도적인 경계심이 일어나곤 하였다. 앤드류의 이러한 감정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라면 대체로 느꼈을 것으로 “가톨릭적인 것과 개일적인 것의 내면에 침투할 수 없는”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한 국가의 종교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이

기도 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그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가 어린시절부터 아일랜드에 대하여 느껴왔던 정신적 압박감에서 이제 비로소 풀려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무렵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더블린에 정착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는 마음이 몹시 불편해진다. 어머니가 연약하게 보이는 것도 싫었지만 아일랜드 땅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녀의 “귀선유전”(13)적 충동이 그의 마음에 더 걸렸기 때문이다.

앤드류는 약혼녀 프란시스(Francis)의 다소 넓은 얼굴에 약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강력한 마력을 발휘하는 미소를 짓는 모습을 떠올리며 전형적인 아일랜드 여성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차 장인이 될 크리스토퍼 벨만(Christopher Bellman)에 대하여는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모호”한 사람으로 “위험한 동물”과 같은 존재로 비유한다. 하지만 앤드류의 생각과는 달리 크리스토퍼 벨만은 점잖고 중후한 영국신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적이며 균형이 잡힌 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벨만은 원래 영국인으로서 금융업에 종사했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은 재산가인데 영국계 아일랜드인 부인인 헤더(Heather)와 결혼하면서 아일랜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원래 관료로서 런던에서 근무하다가 더블린으로 옮겨왔는데 중년에 들어서자 공직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일랜드 연구에 몰두하였고 아일랜드 골동품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이를 트리니티 대학에 기증하도록 유언에 명시했다. 그는 게일어도 구사했지만 게일 연맹에 동참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 언어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보급하는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아일랜드 토착민으로 구성된 아일랜드 폭도들”을 상당수 알고 지냈지만 정치적 의견의 대립에서는 초연한 태도로 일관한다. 아일랜드에 대한 크리스토퍼의 유별난 열의에 찬 연구와 관심은 오히려 그를 이방인으로 보이게 하는데 앤드류는 그가 아일랜드 토속문화에 대한 아마추어적 애호가라는 표면적 호칭의 배후에 체계적이며 진지함이 내재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앤드류는 그를 냉정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가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해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기본적으로는 그의 학식과 초연함에 대하여 존경심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아일랜드에 대하여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대목은 앤드류가 어머니와 함께 프란시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여 네 사람이 나

누는 대화에서이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듯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가톨릭종교를 포함하여 아일랜드의 여러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전을 벌리는데 여기서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먼저 앤드류의 어머니 힐다는 에드워드왕 당대의 여성이라면 으레 지냈을 영국에 대한 충성심과 우월감, 그리고 아일랜드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 반면 크리스토퍼 벨만은 아일랜드에 대하여 지적인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지식인으로 중립적이며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에 비하여 프란시스의 아일랜드에 대한 입장은 가장 동정적이다.

<부활절봉기> 일주일전에 이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당시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사회여론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평소에는 미지근한 신앙심을 보이다가 가톨릭에 대한 말이 나오면 앤드류는 즉각 신교도(성공회)적 입장을 취하고 어머니 힐다 또한 가톨릭교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는다. 예로서 라이언 신부(Father Ryan)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그녀는 “요즈음 그들은 기고만장하지요, 이런 저런 일에 반대하고 요구하고. . . 아일랜드의 자치(Home Rule)는 로마의 자치”라고 거침없이 단언한다. 그런가하면 크리스토퍼는 다소 아이러니컬한 어조이긴 하지만 영국국교인 성공회(Anglicanism)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종교”(38)라고 주장하며 “맞아요. 이 나라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것은 아일랜드 정청(政廳)(the Castle)이 아니라 교회”라고 주장하며 이어서 “위대한 아일랜드 애국자들은 모두 신교도였지요. 오코넬(O’Connell)만 제외하고요. 교회는 페니언 단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파넬에 대해서도요”라고 말하며 힐다의 말에 공감을 표한다(34).

힐다는 계속해서 아일랜드는 전세계로부터 사랑과 환영을 받는 나라인데 왜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영국인]는 셰익스피어도 있고 대헌장(Magna Carta)도 있고 아르마다 해전 등”이 있지만 “아일랜드는 실로 내놓을만한 역사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영국의 우월함을 강조한다(39). 더 나아가 그녀의 “영국과 아일랜드는 실제로는 하나의 나라”(34)라는 힐다의 인식은 사실 당시 아일랜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일랜드에 대하여 동정적인 프란시스는 “영국이 아직 야만인이었을 때 아일랜드는 문명국이었어요”라고 반박함으로써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문화의 우수성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화제가 게일어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자 게일어를 부활한다는 것

은 넨센스라는 힐다의 주장에 크리스토퍼는 게일어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세익스피어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태어난 사실에 만족해야 된다”고 말하며 동감한다.

이들의 역사인식 또한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전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데 가령 감자흉년의 문제에 대하여 크리스토퍼는 영국이 아일랜드를 돕지 못했던 이유는 감자흉년이 “맨체스터 자유무역”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18세기이었다면 영국은 아일랜드를 기아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 주장은 아일랜드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손에 완전히 맡겨졌었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일랜드의 불행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고 묻는 앤드류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1801년과 1914년까지. 이 전쟁[세계일차대전]이 아일랜드의 자치(Home Rule)가 실시되기 바로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야. 벨파스트가 아일랜드 자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국 함대가 받아들일도록 가르치겠다는 처칠 수상의 말을 기억하는가? 자유당(Liberals)은 북아일랜드에 정말 화가 나 있었지. 한 두 해만 억지로라도 종교적인 인내심을 가졌었다면 모든 것이 안정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바람에 지금 우리는 끝없이 문제를 가지게 될 것이야. 합방(Act of Union)에 대한 결정은 아일랜드로서는 커다란 재앙이야. 18세기동안의 영국의 통치는 역사상 가장 문명화된 것이었어. . . . 그것(합방)은 확실하게 아일랜드 국회에 중지부를 찍었지. 아일랜드는 정말로 독립국이 되었을테고 대지주들은 자신들이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했을테니까. 물론 이것은 영국을 겁나게 했지. 그래서 합방되었고 우리의 눈물이 시작되었지. (36-7)

위 인용에서 “우리”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리스토퍼가 찬양하는 “18세기 동안의 영국의 통치”의 중심에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이 있었고 사실 토착 아일랜드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는 이어서 “만일 아일랜드 국회가 있었다면 아일랜드는 오늘날처럼 시대에 뒤쳐진 촌스러운 곳이 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말하자 힐다는 “아일랜드의 자치가 이곳을 더욱 촌스럽게 만들었지요”라고 동조한다. 아일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 주도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크리스토퍼는 계속해서 아일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주도권(English ascendancy)을 무시하고 로맨틱한 아일랜드 전통을 만 들어내는 피어스(Pearse)와 같은 명칭이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일랜드의 진정한 과거는 영국의 지배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중세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18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신성한 아일랜드(Holy Ireland)와 같은 넌센스를 골드스미스나 스티븐과 같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무덤 안에서조차 돌아누울 겁니다. (37)

크리스토퍼가 지닌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영국적 논리에서 볼 때 피어스가 구현한 로맨틱한 감성에 호소하는 아일랜드인 방식의 저항은 결코 영국과 맞대기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판단일 수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일랜드인은 현실감이 결여된 판단하에 무모한 시도를 감행할 수도 있는 민족으로 보인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아일랜드의 비참한 현재 상황은 민족적 정서의 열등함보다는 영국인들의 오랜 통치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아버지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라탄(Grattan)이 우리는 아일랜드 국민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지시요. 아일랜드 시골과 영국 시골을 비교해 보세요. 아일랜드에는 제대로 된 도시도 없고 마을도 없어요. 크라이스트 더 킹(Christ the King) 성당과 전원의 대저택에 다달을 때까지 어디든 오직 똑같은 모양의 형태도 불분명한 조그만 집과 오두막집들만 보일 뿐이에요. (37)

위의 인용에서 언급된 그라탄(Henry Grattan, 1746-1820)은 울프 톤과 함께 신교도인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 아일랜드 사회의 지배층에 속했으며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는 일주일 후면 일어나게 될 <부활절봉기>를 예감이라도 하듯이 “얼스터 지원병(Ulster Volunteers)이 생겨난 이후, 특히 이들이 무장을 한 이후, 이곳(더블린)에서도 비슷한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이니까요” 라고 말한다(39). 1912년 얼스터에서 결성된 친영적 군사조직인 <얼스터 지원병>에 대하여 1913년 아일랜드 민족주의 군사조직인 <아일랜드 지원병>(Irish Volunteers)이 결성되었음을 언급하며 어떤 전운을 감지한 듯한 크리스토퍼의 말 뜻을 잘 헤아리지 못

하는 힐다는 그저 단순히 “영국 해군이 그들의 자유를 지켜 줄 겁니다. 언제나 그 래왔던 것 처럼(39)”이라고 응수하며 영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영국인의 우 월감을 보인다. 아일랜드에 주둔해서 열흘 후부터는 영국군로서 복무를 시작해야 하는 앤드류로서는 아일랜드에서 소요가 일어날지가 제일 큰 관심사이며 염려일 것이다. 앤드류가 아일랜드에 혹시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지 묻자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대답한다.

신폐인 운동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요. 무엇으로 일을 치루겠습니까? 하키 스틱으로? 예전에 이에 대하여 맥닐 (Eoin MacNeill)의 동생에게 말한 바 있지요. 그(맥닐)는 다시 게일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하간 그는 선동자는 아니지요. 자원병(Volunteers)들은 보이스카웃이나 다름없고 제임스 코넬리(James Connolly)의 일당인 아일랜드 시민군(Irish Citizen Army)은 열 명 정도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정도이지요. 만일 독일인들이 아일랜드를 도와 침공해온다면 몇몇 조금한 사람들만이 그들 을 거들겠지만 이것마저 봉쇄한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어쨌 든 내가 말했듯이 그들이 원한다고 한들 아일랜드인들이 대체 무슨 수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무기도 없고 정신이상도 아니라면. 언젠가 자원병 한 분대가 10피트짜리 침봉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은 애처러 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40-41)

크리스토퍼는 아일랜드 자원병에 대하여, 그리고 시민군을 이끌고 가담한 20세기 초 아일랜드 좌파의 사회주의 운동가인 코넬리에 대하여, 또한 독일의 협조와 맥 닐에 이르기까지 <부활절봉기>에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파악하 고 있었으나 이들을 고려할 때 봉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지극히 영국적인 냉철한 현실적 사고로서는 아일랜드인들의 봉기는 군대의 열악함, 무기 의 취약성 등으로 전혀 승산이 없는 무모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이 앞 서는 아일랜드의 감상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냉소적인 크리스토퍼도 이들이 보여 주는 감정의 순수함에는 감동을 받은 듯하다. 프란시스가 “아일랜드인들은 아일 랜드를 비극적인 여성으로 비유하는데 익숙하고 어떠한 애국적인 자극을 받으면 일시에 감정이 폭발치지요”라고 말하자 크리스토퍼는 “그 길에 노파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냐고? 아니야, 대신 한 젊은 여성이 여왕의 걸음으로 걷는 것을 보았어” 라고 말하며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아일랜드인들의 정서에 경이로움을 표한다.

소위 “영국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인 크리스토퍼의 논지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소한 정치적 계산이나 눈앞의 이득을 챙기기 보다는 영국적 방식과는 완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가는 토착 아일랜드인들의 성향과 자질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국회”, 즉 “자체적 문화와 문명화된 권력기구를 지닌 지속적인 지배계급의 발달”인데 이 일은 “18세기에 가능하게 되기 시작했지만 아일랜드 자치가 파괴”시켜 버렸다고 생각하며 “1815년부터 영국의 정치제도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승리를 거둬하면서 비대해졌고 이것은 아일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38).

역사적으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주도했던 인물들은 아일랜드 토착민이 아니라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었다. 크리스토퍼의 언급을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독립국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가톨릭 아일랜드인이 아니라 신교도 영국계 아일랜드인이 있다. 이것은 아일랜드를 위해서는 우월한 영국적 방식으로 아일랜드가 다스려져야한다는 논리와도 통한다.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크리스토퍼의 생각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면 아일랜드에 대한 주도권이 영국에서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 옮겨가는 것일뿐인 이 “독립”이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켈트적 정서에 호소했던 <부활절붕기>는 토착 아일랜드인들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을 제공함으로써 아일랜드 독립의 주체를 영국계 아일랜드인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III. 켈트문화에 대한 동경

앤드류와 힐다, 크리스토퍼에 비하여 앤드류의 고모인 듀메이(Dumay) 가족은 아일랜드에 훨씬 더 동화된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다. 이들은 종교·정치면에서도 토착 아일랜드와 다름없으며 기질면에서도 아일랜드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앤드류는 크리스토퍼의 집에서 나와 고모부 바나바스(Barnabas)의 집을 인사차 방문한다. 고모 캐슬린 듀메이(Kathleen Dumay)는 고모부와 재혼했는데 전 남편

의 두 아들인 이십대 청년 팻(Pat)과 아직 사춘기인 커탈(Cathal)과 함께 살고 있다. 듀메이 가족이 사는 집의 위치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난한 아일랜드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 이 집이 있는 블레싱톤(Blessington) 가의 거리 또한 넓지만 지저분하고 누추하며 항상 개들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공원조차도 음울해 보인다. 집의 문들은 늘 열려 있는데 대부분이 부서졌고 페인트 칠도 벗겨지고 이상한 구멍들이 뚫려있다. 대문의 노커도 떨어져나가서 방문객들은 우편함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만 한다. 집 실내는 어둡고 화장실은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있어 안에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나 문이 열려있어 집안에서는 쿼퀴한 냄새가 났다. 캐슬린은 구식의 누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갈색의 낡고 거친 서지천으로 된 바닥에 닿을 만큼 긴 스커트를 입고 있다.

앤드류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집에서 팻은 조지 무어(George Moore)의 책을 읽는 중이었고 커셀은 『쉬운 아일랜드어 교습』(*Simple Lessons in Irish*)이라는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었다. 군복차림을 하고 광택이 나는 긴 부츠를 신은 건장한 모습의 앤드류가 들어서자 이들은 다소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젊은 장교의 모습을 한 앤드류에게서는 “큰 공적인 세계가 지니는 강력한 분위기가 풍겼고 너무도 보기 좋았고 너무도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치 특사로 뿔뿔히 와서 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이행하는 듯 했으며 . . . 이 젊은 장교는 권력의 표상”처럼 보였다 (47-48). 커셀이 아일랜드어 공부하는 것을 보며 앤드류가 “아일랜드인들은 그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팻이 대신 나서서 “물론이지, 너는 자신이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으며 “언어가 없는 국가는 영혼이 없는 나라이지. 맞아. 그것(아일랜드어)은 상징적 가치가 있지. 한편 누구든 세익스피어의 언어를 말하는 곳에 태어났다면 . .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옆에서 동생 커셀이 “크롬웰의 언어 말이지”라고 거든다. 세익스피어의 언어는 팻에게는 강대한 제국을, 커셀에게는 르네상스기에 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한 크롬웰을 상기시키면서 이 두 형제에게는 지배국가의 상징어로 인식된다.

팻은 자신이 아일랜드인임을 확실하게 했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언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겐릭어를 배우려하고 종교도 그다지 열정적은 아니지만 스스로 가톨릭신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톨릭을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택한 것은 아

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닌 역사의 굴레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도록 운명지워있다고 믿는다. 작가는 팻의 애국심을 가리켜 “로맨티시즘의 정수로서 신랄하면서도 어둡고 순수한 그 어떤 것”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팻에게 아일랜드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다 바칠 것을 요구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의 아일랜드는 명명할 수 없이 순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꾸밈없는 의미로 정의를 말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무조건 봉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의 드라마에는 오직 두 인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아일랜드와 그 자신이었다.

(77)

팻의 애국심은 어떤면에서 앤드류와 크리스토퍼가 감지했던 아일랜드성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아일랜드에 대한 팻의 마음은 맹목적 민족주의라기 보다는 숭고한 애국심으로서 바로 패트릭 퍼어스가 호소했던 신화적이며 희생적인 애국정신이다. 1913년 ‘아일랜드 지원병’ 모집에 대한 공고를 보자 팻은 즉시 가입했다. 사실 당시 그는 제임스 코넬 리(James Connolly)가 이끄는 ‘아일랜드 시민군’(Irish Citizen Army)에 더 마음이 이끌렸었다. 그 해 초에 일어난 파업은 그에게 무척 인상적이었고 이 때 조합이 보인 용기에 그는 깊이 감동했으며 이일을 계기로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짐 라킨(Jim Larkin)의 연설도 들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택한 것은 ‘아일랜드 시민군’보다는 ‘아일랜드 지원병’이었다. 그의 생각에 사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영국은 똑같이 아일랜드의 숙적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아일랜드의 해방운동에 관한한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복잡하고 모호한 이론이 이해도 잘 안되었거니와 사회주의운동과 아일랜드의 해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도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팻이 ‘아일랜드 시민군’에 가입하지 않은 핵심적 이유는 코넬리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확성과 추진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는 헌신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이론적 이었다”(79). 팻은 스스로를 “야만적인 독립성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며 ‘아일랜드 시민군’의 조직과 위계질서에 자신을 소속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도자들도 존경했지만 “진정으로 그

를 감동시켰던 단 하나의 사람은 패트릭 피어스”였다. 작품에서 이러한 팻의 심정은 삼인칭 독백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토로된다.

피어스는 매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짜증나게하고 혼란스럽게도 했다. 팻은 그를 울프 톤 추도위원회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도나반 로사(O'Donovan Rossa)의 장례식에서 그가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연설에서 팻은 “순수한 정신적 힘”이 느껴졌으며 “순전히 무아적인 힘”이야말로 그가 “궁극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숙일 단 하나의 것”임을 감지했다. 물론 피어스는 여러 가지로 화를 복돋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철없는 넌센스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일랜드의 과거를 영웅적으로, 그리고 낭만적으로 묘사하곤 했는데 가령... 유행이나 요정들, 또는 작은 요정과 연결지어 말했다. 그런가하면 그는 평소 나폴레옹에 대한 요란한 찬미가였는데 언젠가는 머리 한 타래를 친구들 앞에 내보이면서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에 대하여도 “대지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전쟁터의 붉은 포도주”라고 기이하고 품위 없는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쓸데없는 말로 낭만적인 것으로 비유했다. . . . 이처럼 여러가지로 마음에 거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해 보였다. . . . 피어스는 철인은 아니었지만 팻을 노예와 같은 도구로 만들 수는 있었다. 팻은 그를 희미하게나마 지도자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고 비록 피어스가 공식적으로 자원군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팻은 그를 자신의 상사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80)

비록 논리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일지언정 신비하며 감성적인 피어스의 말은 팻의 순수한 애국심에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바로 이러한 피어스의 성향을 앤드류는 “신비하고 어두운” 아일랜드인의 속성으로 이해했고 두려워했다. 장인 크리스토퍼 벨만 또한 이러한 특질에 대하여 자신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팻의 의붓 아버지이자 앤드류의 고모부인 캠브리지대학 출신의 영국계 아일랜드인인 마나마스 역시 아일랜드의 이러한 특질에 강하게 이끌리는데 그에게 아일랜드는 “어두운 지대”이며 “느리고, 기품이 있고 신비한” 마력을 지닌 나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또한 크리스토퍼처럼 아일랜드인들의 본질을 알아 보았고 사랑했으며 앵글로 색슨 정서와는 다른 켈트적 정서를 일컬어 “호방하고 기질이 강함,” “신비함,” “원시적인,”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다(104). 이러한 아일랜드 정

서에 대하여 크리스토퍼나 바나바스와 같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는가 하면 앤드류와 같은 경우에는 불가해한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된다. 팻에게는 아일랜드에 대하여 순수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감으로 작용했으며 <부활절봉기>에 가담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으로 작용하였다.

IV. 부활절봉기의 날

<부활절봉기>는 세계1차대전을 치른 후 미국내 아일랜드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독일의 무기를 아일랜드로 들여와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독일에서 아일랜드로 무기를 들여오려던 로저 케이스먼트(Roger Casement)의 시도가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적과 녹』에서는 맥닐(Eoin MacNeill)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앤드류의 고모, 밀리(Milly)의 말을 빌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독일에서 무기를 실은 배가 노르웨이 어선으로 가장하여 아일랜드의 트라리(Tralee) 부두에 들어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곳에서 무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거의 이틀이나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해안을 따라 배를 이동하다가 소형어선과 부딪쳤고 영국함대에 적발되어 퀸스타운(Queenstown) 부두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배의 독일인 선장은 영국함대 앞에서 자신의 배 안의 사람들을 모두 내리도록 한 후 배를 폭파시켜버렸다. 이후 독일인들은 트라리의 막사에 머물고 있던 케이스먼트를 독일잠수함에 태운 후 아일랜드로 이송하여 상륙시키려고 했지만 곧바로 영국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202). 역사적으로 볼 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아일랜드 자원군>에 대한 맥닐의 작전취소명령이었다. 봉기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의를 거쳐 봉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방의 아일랜드 군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더블린의 소수의 군대만으로 영국군 전체를 상대해야 되었다. 피어스와 코널리는 부상을 입었고 이들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항복했다. 이후 봉기의 지도자들은 영국군에 의하여 모두 처형되었다.

<부활절 봉기>를 이끌었던 두 대표적인 지도자는 패트릭 피어스와 제임스 코널리이었는데 피어스의 <아일랜드 자원군>이 코널리의 <아일랜드 시민군>보다

숫자적으로 규모가 더 컸다. 신비주의적 시인이며 게일문화 연구가였던 “낭만적 혁명가”로 알려진 피어스와 달리 코넬리는 사회주의자였으며 그가 이끌었던 <아일랜드 시민군>은 1913년 짐 라킨이 주도했던 더블린의 교통파업에서 유래했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빈틈없는 정확성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일을 추진한 코넬리는 피어스와는 달리 실질적인 차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코넬리 역시 “게일문화 부흥운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민태운 85).

『적과 녹』에서는 봉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팻이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리버티 홀 앞에 아일랜드 깃발이 비에 젖은 채 걸려 있는 것을 보는데 그 깃발에는 “우리는 왕도 카이저도 섬기지 않겠다. 오직 아일랜드만 섬기겠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208). 그는 충격에 휩싸여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코넬리도 보게 된다. 맥길리브라(Magillivra)가 팻에게 전해준 신문에는 봉기를 철회한다는 기사와 함께 맥닐, 맥도나휴(MacDonagh), 드 벨레라(de Valera)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이후 맥닐과 홉슨(Hobson)과 같은 봉기를 반대하는 소위 “온건파”들은 봉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피어스, 맥더모트(MacDermott), 맥도나흐(MacDonagh)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154, 209-210). 봉기 전날인 일요일 아침신문 『선데이 인디펜던트』(*Sunday Independent*)에 봉기 취소명령이 기사화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어스, 코넬리, 맥도나흐를 위시하여 다른 전투대원 대장들이 리버티홀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원래 봉기일로 정했던 날의 그 다음날인 1916년 4월 27일 월요일 12시에 <부활절봉기>를 감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밀사를 시켜서 새로운 지시를 전국에 전달한다(236).

우체국 건물 전면에는 “아일랜드공화국 임시정부본부”(Headquarte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Irish Republic)라는 글씨가 쓰여진 커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또한 평소 건물 위쪽에 걸려있었던 영국국기 대신 “아일랜드 공화국”(Irish Republic)이라는 글이 새겨진 초록색 국기가 팽팽하고 선명하게 걸려있었는데 어쩐지 어설피고 아마추어적인 분위기를 풍겼다(268). 우체국 건물의 유리창들이 부서져 있었고 영국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중앙우체국의 주랑 현관에 한 남자가 서서 별로 인적도 없는 거리를 향하여 손에 든 종이를 보며 읽어내었다. 앤드류 옆에서 쌍안경으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패트릭 피어스인데”라고 말했다. 앤드류에게 낭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내 전체에 퍼칠 동안 붙여져 있었

던 포스터의 글을 통해서 그는 그 내용을 이미 여러 번 읽었었다. “아일랜드 국민 여러분. 신과 조상으로 이름으로 이 국가의 오래된 전통을 물려받은 아일랜드는 이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우리를 국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 . .” (268).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앤드류가 “신과 성모가 이제 그들을 돕는다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에서 커셀이 “아일랜드에게 오늘은 정말 이지 굉장한 날 같아”라고 응수한다(271).

『적과 녹』의 인물 중 이 부활절봉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꽤 한 사람뿐이다. 그는 냉철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신조에 철저했고 이것에 저촉되는 일에 대하여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자신의 신념에 자신의 전부를 몰입하는 그의 성격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이끌어냈지만 그의 사랑의 대상은 동생인 커셀과 아일랜드뿐이었다. 다소 순진하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애국심을 표하는 커셀에 비하여 팻의 애국심은 훨씬 엄격하고 견고했다. 아일랜드의 구국에 대한 팻의 열렬한 헌신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결국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만 아일랜드는 그에게 “순수한 정신의 소산” 그 자체였고 “무자비할 정도로 봉사할 바쳐야 하는 대상”이었으므로 아일랜드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오직 고통과 온전히 희생 을 의미했다(77-83). “역사는 이제 그에게 피를 흘려야 할 것을 요구”했고 <부활절봉기>에서 마침내 순교할 기회를 찾은 것이다(237). 거의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된 그의 애국심은 오직 죽음에서만 완성될 수 있었다.

한편 이 날 크리스토퍼는 더블린 시내의 우체국에 집결되어있는 혁명군에 가담하기로 결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으로 가던 중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을 맞고 죽게 되는데 저격병이 아일랜드군인지 아니면 영국군인지 밝혀지지 않는다. 작중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분별력이 있으며 늘 온건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그가 막상 봉기가 일어나자 평소의 그 답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크리스토퍼는 바나바스처럼 완전히 아일랜드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일랜드의 역사, 국민성, 정치에 동정심을 가졌었다. 비록 혁명이 일어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오판을 내리기는 했지만 케이스먼트의 애국적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토퍼 뿐이었다. 이 “동기”란 영국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아일랜드인의 “미친 영웅주의”로 이것은 또한 팻의 애국심과 <부활절봉기>에 그를 헌신하도록 한 아일랜드 정신, 아일랜드 기질이기도 했다. 앤드류가 평소 “신비한 어두운 힘,” 또는 “어두운 두려움”으로 여겨왔던 아일랜드인들의

이 “비합리적,” “비현실적,” “비이성적” 매력에 크리스토퍼는 몰입되었고 그의 생애 단 한번 분별을 잃은 행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다.

V. 에필로그

『적과 녹』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에서는 <부활절봉기> 이후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가늠해보고 있다. 이 역사적 관망은 프란시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등장인물 중에서 그녀가 인간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에필로그에서 프란시스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런던에 살고 있다. 그녀의 세대에 속하는 팻, 커셀, 앤드류의 죽음과 함께 젊음이 품어냈던 격렬함도 이제는 사그러지고 프란시스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남기고 사실상 패배로 끝난 <부활절봉기>는 과연 당위성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을까? 프란시스는 다소 애수 어린 어조로 예이츠 시의 한 귀절, “그 죽음은 결국 불필요하게 야기된 것이었는가요?”와 같은 질문을 되뇌이며 역시 예이츠가 내린 결론, “충분한 의미가 있지요/ 그들은 꿈꾸었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만으로도”에 공감한다. 지극히 영국적 사고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이는 프란시스의 남편은 <부활절봉기>에 대하여 “1916년의 년센스는 정말 분별 없는 사건이었다”고 냉소적으로 폄하해 버린다. 그는 아일랜드에 대하여도 “독일의 자본금에 의존해서 사는 촌스러운 쓰레기더미. 낙농업국이며 손수 치즈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런가하면 캐슬린 니 홀리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싫증나는 존재”이며 아일랜드는 “오늘날 국민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일종의 순전히 로맨틱시즘적인 어리석은 마음을 지닌” 국가 정도로 인식한다(275). 이러한 영국의 관점과 논리로 팻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신비한 힘, <부활절봉기>를 가능하게 한 켈트적 정서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순수하며 불꽃같은 의지 앞에서 영국적 “합리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평소 아일랜드인에 대하여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센티멘탈하고 감정적인”(41) 민족성을 지닌 국민으로 의구심을 보였던 크리스토퍼가 막상 봉기가 일어나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적과 녹』에서 <부활절봉기>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두 나라의 각기 다른 민족적 성향, 그 한계와 가능성을 서로 비추어 보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합리성”이나 “비합리성”이라는 표현으로 어느 한 쪽에 우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

궁극적으로 작가인 머독의 <부활절봉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작품은 프란시스가 예이츠의 시에서 “끔찍한 아름다움이 탄생하였다”라는 귀절을 떠올리는 것으로 끝맺는다. 프란시스는 스스로에게 <부활절봉기> 당시의 몇 주 동안이 그녀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의 전부이었고 나머지 생애는 그저 생존해 있는 것일 뿐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사춘기에 든 아들에게 “그들은 영광스러운 것들, 정의, 자유, 아일랜드를 위하여 죽었어”(280)라고 말함으로써 희생의 아름다움과 그 결실을 인정한다. 소설은 프란시스가 팻을 사랑했었다는 고백으로 끝난다.

<부활절봉기>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인 신플레인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이후 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도록 국민적 정서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한다. 작품에서 <부활절봉기>는 승패 여부를 떠나 아일랜드인들의 정서가 가능하게 한 봉기로 자유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을 보여주며,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오직 순수한 정신, 그 “어두운 힘”만이 현실적 논리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앤드류가 두려워했던 “신비한 어두운 힘”(mysterious, dark power), 아일랜드의 “비합리적” 정신이 아일랜드봉기를 실현시킨 것이다. 그래서 피어스의 문학적 상상력이 유효할 수 있었다.

(송실대)

인용문헌

- 민태운. 「부활절 봉기와 조이스-「키클롭스」장을 중심으로」. 『제임스조이스저널』 15.2 (2009): 75-92.
- Murdoch, Iris. *The Red and The Green*. London: Penguin Books, 1988.
- Reynolds, Margaret and Jonathan Noakes. *Iris Murdoch: the Essential Guide*. London: Vintage, 2003.
- Spear, Hilda D. *Iris Murdoch: Macmillan Modern Novelists*. London: Macmillan, 1995.
- Todd, Richard. *Iris Murdoch*. London & New York: Methuen, 1984.
- Yeats, W. B. “Easter 1916.”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Ed. M. H. Abram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3. 1970-72.

Abstract

Easter Rising and Irishness in Iris Murdoch's *The Red and the Green*

Eunkyung Chun

The Red and the Green depicts the 1916 Easter Rising in Ireland and political tensions in the Anglo-Irish family. The Anglo-Irish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Irish and English, while being regarded as neither. The “red” and the “green” of the novel’s title implies the opposing forces between the British side and the Irish side that exist between members of the Anglo-Irish family in the novel. The opposition of the two sides is most apparent in their tempera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microcosm of this family, the members of the Irish side seem to be more passionate, robust, alive, and capable of both greater emotion and greater flaws than the members of the English side, who appear more reserved and rational, but dull and sterile. The novel shows the Irish patriotism of the Anglo-Irish in the Easter Rising, of which some doubtful, and about which some were enthusiastic. Andrew and his Irish cousin, Patrick Dumay, embody this dichotomy.

The Easter Rising in *The Red and the Green* can be read as the resurgence of Ireland’s national aspirations in its long struggle to attain nationhood as well as to define the reshaped Irish national spirit. In the novel, a particular aspect of “Irishness,” which is distinguishable from “Englishness” (or Anglicized culture), is implied through one of the major two leaders who plays a key role in the Easter Rising: Patrick Pearse, the mystic poet, Gaelic scholar, and leader of the Irish Volunteers, and not James Connolly, a leader of the social revolution and Irish Citizen Army. Pearse’s emphasis in the Easter Rising is on martyrdom, which is manifested in the humanized symbol of Ireland as Kathleen ni Houlihan, a sad old woman, who calls on her Irish sons to go out and die for Ireland.

The image of martyrdom contains within it the dark and mysterious force which Andrew always fears. The dark force works as a key spirit which Patrick Pearse invokes and Pat Dumay embodies through his patriotic fervor in the Easter Rising. Emotionally, Pat is tied deeply to Ireland and to Catholicism, and he is fiercely devoted to the national cause. Despite his distaste for the sentimentality in Patrick Pearse's address, he finds the opportunity to make a final sacrifice giving up his life for Ireland. Christopher Bellman, the intelligent and most judicious English person in the novel, who has an intellectual interest in Ireland and a sympathy for the Irish history and people, used to regard this Irish spirit as "insane," but when Christopher confronts the Rising, he joins the insurrection and pays a high price with death. While Andrew fears the irrational attraction of Ireland, Christopher is profoundly moved by it.

■ Key words : 1916 Easter Rising, Irishness, Celtic culture, Anglo-Irish, Patrick Pearse, Home Rule, Act of Union

(1916년 부활절 봉기, 아일랜드성, 켈트문화, 영국계 아일랜드인, 피어스, 아일랜드의 자치, 영국과 아일랜드 합방)

논문접수: 2012년 5월 27일

논문심사: 2012년 6월 6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21일